One pick 핫이슈

김태리·남주혁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12일 첫방송…9일 온라인 제작발표회

'스물 다섯 스물 하나'

배우 김태리와 남주혁이 안방극장의 시간을 1998년으로 돌린다. 두 사람은 12일 밤 9시부터 방송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통해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한다.

드라마는 1998년을 배경으로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청춘 로맨스물이다. 첫 방송에 앞서 두 사람은 9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관련 이야기를 들려준다. 극중 김태리는 IMF 금융위기로 팀이 없어졌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펜싱 꿈나무 나희도 역을 맡았다. 최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그는 짧은 앞머리와 교복을 입은 모습 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태리와 호흡을 맞추는 남주혁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다 기자가 된 백이진 역을 맡아 로맨스를 그릴 예정이다. 두 사람 외에도 걸그룹 우주소녀의 멤버 보나를 비롯해 최현욱, 이주명 등이 함께 출연한다.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권도은 작가와 정지현 PD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작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완도 소년 '위하준'의 배우 탄생기

"전복 따던 내가 글로벌 스타? 기적의 연속"

'오겜' 이정재 등 대선배와 호흡
해외매체 인터뷰·세계팬 응원…
지금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와
드라마 '배드 앤…'로 자신감
연기의 원동력? 가족들이죠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위하준도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다. 최근 종영한 주연작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은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사진제공 |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이죠."

배우 위하준(위현이·31)은 가끔 "꿈꾸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세계를 휩쓸면서 국내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후부터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 주연을 맡고 안방극장에서도 우뚝 섰다.

변화는 "쉴 틈 없는 스케줄"로 체감했다. 드라마 촬영을 하는 중에도 해외 매체들과 '오징어게임' 관련 인터뷰를 나누느라 새벽 3시에도 카메라 앞에 섰다. SNS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응원 댓글이 넘쳐난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선물까지 쏟아져 들어오는" 깜짝 놀랄 경험도 했다. 정말로 '스타'가 됐다.

● "완도군 홍보대사, 꿈 이뤘죠!"

전남 완도가 고향인 그는 지난달 완도군 홍보대사가 됐다. '위하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제대로 알린 덕분이다. 화상으로 만난 위하준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받나 싶다"며 "책임감이 더욱 커지는 중"이라고 웃었다.

"학창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죠. 언젠가 배우로서 고향을 알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이루게 돼 기뻐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셔서 효도한 기분이 들고요. 아버지를 따라 가두리 양식장에 배 타고 가서 전복 따던 게 생생해요. 곧바로 회쳐서 먹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 데쳐먹는 전복의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배우의 꿈을 안고 서울에 와서도 대학에 입학해 군 복무(2013년 공군 만기전역)까지 마치느라 바쁘게 살았다. 그러니 '오징어게임' 이정재·박해수, '배드 앤 크레이지' 이동욱 등 "TV에서나 보던 선배들과 연기하는" 지금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했다.

"짧은 시간 안에 관심을 받게 됐어요. 애써 내 자신에게 '물살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잠시 뿐인 것'이라고 되뇌었죠. 열기가 사그라지고 나면 상처받기 싫어서 더 열심히 드라마 찍고, 항상 하던 대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때를 전혀 즐기지 못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 "가족들, 연기의 원동력"

'배드 앤 크레이지'에서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케이(K)를 연기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오징어게임'의 부담감까지 씻어준 드라마가 "내 연기를 기대하게 만들어줬다"고 뿌듯해했다.

"그동안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일종의 강박 같은 거였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케이를 연기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와장창 깨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데뷔 초에는 항상 자존감도 낮고 불안과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배우와 사람으로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좀 더 "여유로워질" 생각이다. 미국배우조합상의 최고상인 앙상블상 후보에 오르는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오징어게임' 열기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만간 촬영을 시작해 하반기에 내놓는 tvN '작은아씨들'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다진다.

"제가 참여한 작품이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믿기 힘들어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지 아직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 가지고 연기해야죠. 무엇보다 제 작품을 늘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가족들을 보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절 보면 쉴 새 없이 상황극을 시키는 5살 조카도 그렇고요. 가족이 연기의 원동력이죠."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태호 PD·이효리의 '서울체크인'…정규시즌 확정

티빙 콘텐츠 중 유료가입 기여자수 1위
3월 6부작 방송 가능성…또 일낼지 관심

서울체크인

역시 이효리다.

'흥행 메이커'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이효리와 김태호 PD가 또 다시 일을 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지난달 29일 공개한 '서울체크인'이 봄 정규 시즌으로 돌아온다. 정확한 공개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6부작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체크인'은 '제주댁' 이효리의 서울 나들이를 그린 파일럿 예능으로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의 김태호 PD가 MBC를 퇴사한 후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도 관심이 높았지만, 제주살이 9년 차인 이효리가 서울에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디서 자고, 누구와 만나는지 등을 실감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6일 티빙 측에 따르면 공개 당일부터 티빙 전체 콘텐츠 중 유료 가입 기여자수 1위를 기록했다. 2~3일 차에는 공개 당일 대비 유료 가입 기여자수 합산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청 UV(순방문자수)는 같은 채널의 화제작인 '환승연애', '술꾼도시여자들'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유튜브에 공개한 예고, 하이라이트 등 클립영상 조회수는 400만 뷰를 돌파했다.

인기의 힘은 이효리의 꾸밈없는 진솔한 모습에서 나왔다. 가수로서의 고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넸다.

정규 편성이 확정되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도 팬들의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이효리가 김완선, 엄정화, 보아, 화사 등 당대 최고의 댄스 여가수들과 만나 "우리끼리 버스타고 돌아다니면서 전국 콘서트라도 해보는 게 어때?"라고 말해 시청자들은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딴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구입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딴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능,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용기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형

(저가용) 보급형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보청기 ·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 잘 들린다

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한 사람에게 깨끗하고 선명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제품 음성 증폭기가 출시됐다. 이 제품은 귀가 잘 안들려 불편하거나 TV를 시청할때 답답했던 사람, 전화나 핸드폰 통화 시 선명한 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교회나 대강당, 넓은 공간 등에서 강의, 세미나, 수업, 설교 등을 또렷하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잡음이 적게 회로가 설계되어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통음, 저음, 중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특정 음역대역만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쪽 귀에만 꽂아서 들을 수 있고 양쪽귀에도 꽂아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약2시간 정도의 충전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 5.4센티 넓이가 1.5센티 두께가 1.2센티로 매우 작고 가벼운 블루투스 형태로 귀에 꽂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사용방법은 블루투스를 한쪽 귀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과 스테레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연료절감기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자신있습니다

**자동차 잘나가고 연비 향상
블랙박스 상시 주차시에도 배터리 방전 방지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량 등 시거잭에 꽂기만 하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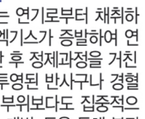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연료절감기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워세이버' 가 바로 그 제품.**
이 제품의 연료절감의 숨은 비밀은 배터리에 있다.배터리는 방전이 진행됨에 따라 충방전 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극판에 달라붙어 있던 황산염이 충전시에 극판에 축적되면 배터리의 축전능력이 감소한다. 이 제품은 펄스신호로 극판에 달라붙어 있던 황산염을 분자레벨로 분해해 배터리의 성능을 2배이상 향상시켜 연료를 절감하게 되는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는 모든 전자장치와 모터 그리고 점화플러그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많이 나빠진 배터리는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 점화플러그가 나쁘면 고속주행시에 연료를 5~10% 더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제품의 원리는 배터리를 재생, 복원하여 연료를 절감하게 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기능은 자동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고 엔진소음도 조용해지며 주행속도에 따라 연비도 좋아진다. 특히 제조회사측에 따르면 10~20%의 연비가 향상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제품은 블랙박스를 켜 놓은 상태인 상시 주차에도 7일 후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려 배터리 방전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갖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휘발유, 경유, LPG 차량 등 모든 차량의 시거짝에 꽂기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 인기를 더하고 있다.**
2012년 특허청으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그 동작 방법' 에 대해 특허를 획득했으며 공인기관에서 공인 받은 연료절감기술을 획득해 믿음이 가는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품을 반신반의 하며 구입해 사용했던 경북 영천의 백 모씨는 "신기할 정도로 힘도 좋아지고 차량 소음도 줄었다"며 "가스충전을 가득했을 때 400Km도 운행을 못했는데 지금은 500Km는 거뜬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제품은 지난 2016년 6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즉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 것에 대해 승소하여 연료절감,배터리 재생 및 복원기술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 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돼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酢)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숯 굽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엑기스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 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발은 전신이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땀,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빠지고 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 들이 발에 쌓인다는 것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김 모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발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며 "발은 자극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 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의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몸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수험생, 연로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며 "관계법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고 밝혔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